

반도체업계 美 생산 경쟁… 삼성·SK, 공장건설 등 투자 속도

삼성전자 테일러 2공장 착공 예정
텍사스 지역 370억달러 이상 투자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
기술 연구개발·전문인력 확보 추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미국 투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생태계 투자가 급물살을 타면서 현지 반도체 생산기반 구축 경쟁 또한 가열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IT 전문매체 디지털타임스는 삼성전자가 오는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2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설 공장은 기존 1공장보다 약 1.5배 큰 270만 제곱피트(약 25만 m²)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테일러 2공장 건설 계획을 지난 7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발표하며 2030년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테일러 1공장도 연내 가동을 목표로 생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현장. /SK하이닉스

조장비 반입과 공정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 7월에는 테슬라와 약 165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AI6가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과 기존 오스틴 사업장 등을 포함해 미국 텍사스 지역에 총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7억4500만달러의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지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지원과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총 2284만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64만달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사용된다.

SK하이닉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엣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

단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미국에 건설하는 첫 생산시설로, 총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디애나 공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D램을 적층·패키징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후 공정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10월 클린룸을 개소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퍼듀대학교와 협력해 차세대 패키징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미국 정부도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구

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지원금과 5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장 가동 이후에는 약 1000명 규모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도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텍사스주에서도 신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C.C. 웨이 TSMC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텍사스 지역의 부지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대는 고객사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공장 운영비용은 부담 요인”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변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최진식 “국회가 기업 지속성장 위해 법·제도 지원해주시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기업계,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조 의장, 중견기업법 개정 등 언급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20일 중견련에 따르면 전날 최 회장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최 회장은 9월 정국개회 개회사에서 조 의장이 제시한 대로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충분한 성장이 필수”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선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왼쪽부터)최명배 와이씨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조정식 국회의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제감의 계기가 중요하다”며 “2008년 이후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전망과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방안으로서 공익법인 주식 취득·보

유 기준을 확대하는 등 성장 효능감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허리’이자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기업 승계, 인재 확보, 근

로 시간 등 주요 현안에 관해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美 엑셀리스, 평택 오성산단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 증설

이온주입 장비 생산능력 대폭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핵심 허브 육성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테크놀로지(Axcelis Technologies)가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평택에 아태지역 제조 거점 증설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엑셀리스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오성 산업단지 부지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 증설 착공식을 진행했다.

AAOC는 엑셀리스의 유일한 해외 제조 거점으로, 이번 증설을 통해 반도체 핵심 공정인 이온주입 장비의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이온주입 장비는 반도체 내부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초미세 입자를 주입하는 장비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 설립된 AAOC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수요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장비를 공급해왔다. 이번 증설은 지난 9월 G20 혁신장관회의의 계기 미국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투자신고식의 후속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엑셀리스는 AAOC를 기존 생산

거점 중심에서 향후 R&D, 시제품 생산, 기술교육 등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거점으로 구축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장비 수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엑셀리스 코리아는 최근 4년간 국내 협력사 수를 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약 25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1700억 원 규모의 국내 조달 실적을 내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러셀 로(Russell Lo

w)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영근 엑셀리스코리아 대표와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원용 평택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인사, 국내 수요·협력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엑셀리스의 이번 투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뜻깊은 투자”라며 “AAOC의 증설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엑셀리스의 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도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애로를 살피고,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1면 ‘AI거품 공포…’서 계속

아시아 증시 ‘뒤흔서리’ 코스피 5500선 후퇴

시장을 둘러싼 다른 약재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돈 데 이어 프랑스에선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한 가운데 재정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10년물 금리가 0.12%포인트 오른 4.9%까지 치솟았다.

시장 우려에도 노무라증권은 이날 AI기업의 매출 둔화와 자금조달 우려에도 메모리 수요가 적어도 2028년까지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목할 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정하고 두 회사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AI발 반도체 쇼크에 이날 코스피는 3.73% 하락한 5552.74에 마감했다. 외국인도 이날도 코스피시장에서 1839억원을 순매도했다. 일본 닛케이225(-1.30%)를 비롯해 대만·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뒤흔서리를 맞았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기술주에서 발을 빼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5거래일간 기술주 비중을 역대급으로 빠르게 줄였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3.5%로 줄었다.

/허정음 기자 zellkova@



코스피가 215.27포인트(3.73%) 하락한 5552.74로 마감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